



이명박 대통령이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지역 발전 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뒤 미이스터고등학교인 광주자동차설비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1년 9개월만에 광주 방문한 이대통령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직접 챙기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7일 광주 방문은 지난 2009년 말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이후 1년9개월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오는 2014년 말 개통될 예정이었던 호남고속철도를 최대한 앞당겨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참석하게 해달라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약속'은 '호남 챙기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오랜만에 광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 주요인사들의 즐거운 지역숙박사업 지원 요청을 애써 외면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차량 동승한 강운태 시장 설득에 약속 KTX 신선 등 숙원 사업 지원 언급 없어

국가도약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2011 지역발전주간 개막식' 참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실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공공부문부터 고졸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기업이 많이 와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제 지역과 중앙이 따로 없다"며 "지역만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 중앙보다 지역에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5+2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광역화'와 빠르게 변화하고 세계 최고만 살아남는 환경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이라며 "지역발전 성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

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했다. 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여수엑스포 현장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에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며 "이를 단순히 적지만 할 것이 아니라 거래소로 만들어야 하며, 현 정부에서 준비한다면라도 구성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50억원으로 일단 어떠한 상품을 거래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본부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어 "서울 증권거래소, 부산 선물거래소, 광주 상품거래소 등을 거론하며 설득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직접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 받았다. 강 시장은 "정부부처에서 신규 사업, 특히 지역숙박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 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찬에 참석했던 지역 인사들은 "대통령께서 모처럼 지역을 방문해 굽직한 선물 하나 정도는 내놓을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검사로 임명되어...
변호사 권오성 올림
사무소: 2011. 8. 26.
사무장: 부산 영해구 개포동 1493-1 한빛빌딩203호
대표전화: (051) 507-9601
팩스: (051) 507-9602
개업소일: 2011. 9. 19(월) 오후 5시 30분부터

F1, 결국 전남도 직영사업으로

지방채 1980억 발행 경주장 인수 ... 의회 의결 난항 예고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끝난 전남도 자체 사업으로 처리하게 됐다. 전남도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경주장을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바뀐 것이다.
당장, 경주장 인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9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한데다,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계획비용까지 고스란히 전남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7일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F1 경주장(37개동 3만9000㎡)을 인수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수립에 관한 건'과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8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1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F1 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을 맡았던 민간 법인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 기능을 흡수하고 전남도가 대회를 주도하는 체제로 변경한 데 이어, 경주장마저 직접 인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이듬해 '의안은 본회의 개최 7일전에 제출한다'는 전남도의회 회의규칙(20조 2항)에 따라 9일 전남도의회로 부의된다.
전남도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 262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이들 안건을 한꺼번에 제출해 통과시킨 뒤 최대한 빠른 시기에 경주장 매매 계약과 자산 등기를 9월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앞서 6일 도의회 이호균 의장을 비롯, 송주호 행정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동권 기획사회위원장 등 도의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경주장 인수 방침 및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만 수백억원의 적자를 냈고 향후 수익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개회권료와 중계권료, 운영비 등을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매우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의회에서도 의원간 찬·반 기류가 엇갈리면서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은 "도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위원장 경선 끝난 한나라시·도당 또 분란

"이중당적 투표" "금품 살포" 주장 후유증 예고

1년여 만에 사고지구당에서 제2회 최 근위원장 경선을 치렀던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또다시 위원장 경선을 내분을 겪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금품살포 의혹'과 '이중당적 대의원 투표' 등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경선이 치러졌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광만 후보는 7일 자료 등을 통해 "총 대의원 517명 중 20명이 민주당 당원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중당적 가진 사람이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시장 사무처가 투표자격이 없는 이들을 대의원으로 선발했다"며 "사무처가 특정인사를 영두에 뒀던 의혹이 있는 만큼 경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했다.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의 경우도 경선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신임 김문일 전남도당위원장 임명이 보류됐다.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천성복 후보는 "경선과정

에서 40만원을 받은 대의원이 도당 선관위에 자수했고, 이번 경선과 관련해 한 당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경선에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011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태국·필리핀·중국·베트남 전문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수 있는 골프전문가 스피드 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9월20일(화)~9월21일(수) 1박2일 45홀 ₩ 399,000
8월 29일~10월 28일 까지 주중 1박2일 골프
1. 한라산 골프텔 30평 (4인1실) 36홀
제피로스CC 18홀 + 한라산CC 18홀 ₩ 319,000
2. 부영 골프텔 30평(4인1실) 45홀
더클래식CC 18홀 + 부영CC 27홀 ₩ 359,000
3. 아덴힐 골프텔 30평(4인1실) 36홀
세인트포CC 18홀 + 아덴힐CC 18홀 ₩ 39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그린피, 숙소, 수송차량, 클럽조식
불포함사항 중식/석식, 전동카, 캐디팁, 기사팁, ★유가할증료
※10월 31일까지 주중 출발요금입니다. 주말출발요금 별도 문의! 골프장 및 숙소 변경 가능합니다.
1조이상 출발 가능!! 24시간 예약 서비스 가능!! · 2박 3일 및 3박 4일 맞춤형 골프투어 가능!!
KOREAN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투어클럽 & 스피드 골프 투어 062)382-8201, 010-3613-7810